

여수시 고품질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 나선다

순자원유통지원센터와 활성화 협약...재정·기술적 지원 받아 AI 자동수거기 설치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 정착에도 온 힘

여수시가 선진화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여수시는 최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이명환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여수시는 센터로부터 재활용가능 자원의 회수·선별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받게 된다.

여수시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기 위한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인공지능(AI) 재활용품 자동수거기를 갖춘 '여수시 나눔행복 자원순환 가게'는 거북선공원과 성산공원 등 9곳에 운영되고 있다.

깨끗한 재활용품을 이곳에 분리배출하면 연간 7만원까지 탄소중립 포인트로 돌려받을 수 있다. 1000포인트는 1시간 상당 자원봉사 시간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 자원순환 가게에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지난 연말까지 207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10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공지능 캔·페트병 자동수거기 누적 이용자 수는 7만2286명으로, 이들은 3600만여 개를 분리배출했다. 이를 통해 포인트 3억6470만점을 쌓아 2억7618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다.

'여수 행복나눔' 자원순환가게는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과 연계해 생활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회용기(텀블러) 사용 운동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 초등학교와 경로당, 공동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과 홍보도 벌이고 있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시행을 위한 중추 기관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페트병, 유리병 등 제품의 포장재를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회수·재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센터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여수시(시장 정기명·오른쪽 네 번째)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이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생활 속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제품·포장재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대행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요·공급하기 위해 활동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술적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회수,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고흥군 여름 집중호우 대비 토석 채취 허가 8곳 점검

고흥군은 24일부터 오는 7월5일까지 지역 토석 채취 허가지 8곳에 대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점검'을 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고흥군 산림보호팀과 환경지도팀, 북함민원팀 3개 팀이 참여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완충 구역 등 경계침범·경계 표시 여부, 허가 기준 적합 여부, 개발허가 등의 적법한 행위 여부, 침사지와 세운시설 등 토사 유출 방지시설 관리·설치 여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환경법 적정성 여부 등이다.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조치할 사항은 바로잡을 방침이다. 고의나 사납성 위반행위는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집행한다.

행정처분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허가지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허가 일시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사업장 주변과 경사면 등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위험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순천시 종합 스포츠파크 조성...남해안 스포츠 허브도시 발돋움

8만㎡ 규모 2026년 착공

순천시는 남해안 스포츠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기반시설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순천시는 시청에서 차로 15-20분 거리 외곽지역에 8만㎡ 규모 종합 스포츠파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 스포츠파크는 부지 선정과 매입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 착공, 2031년께 완공할 목표를 세웠다.

순천의 대표 체육시설인 팔마종합경기장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장기적인 체육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종합 스포츠파크에는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한 해 순천을 찾은 전지훈련 선수단은 8만 4000명으로, 종합 스포츠파크는 전국 체육인이 훈련할 수 있는 거점 체육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 순천시는 연향동에 건립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과 연계한 에너지 자립 거점 공간에 체육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곳은 국제 규격 수영장과 배드민턴 전용구장, 스마트 최첨단 체육시설을 갖춰 가족 친화적 스포츠 문화공간을 꾸린다.

오는 8월 말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문화와 체육을 즐기는 '어울림센터'가 품덕동 오천그린광장 인근에 문을 연다.

센터는 체육관동 '어울림체육센터'와 도서관동으로 구성된다. 어울림체육센터는 지상 3층 규모 복합 체육시설로 지어진다. 다목적 체육관과 생활체육교실, 체력단련실 등 시설로 이뤄져 있으며, 3층에는 전남 첫 장애인체육인인증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오는 8월 순천시 품덕동 오천그린광장 인근에 문을 여는 어울림체육센터 전경. <순천시 제공>

정이다.

다목적 체육관과 생활체육교실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수업을 포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체육 교육이 운영된다. 장애인의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당구 교실도 마련된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운동실도 따로 갖춘다.

전남에서 처음 생기는 장애인체육인인증센터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개인 맞춤형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 체력 증진 교실이 진행된다.

순천에서 열리는 대표 체육 행사인 '순천남송릉마라톤대회'는 올해 폴코스 종목을 추가해 열린다. 이 대회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고(故) 남송릉 선생(순천 저전동 출생)의 일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11월 둘째 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순천시와 순천경찰, 순천시체육회는 올해 초부터 폴코스 개발을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팔마주경기장에서 출발해 남송릉추모탑 앞을 지나 순천만 습지 부근을 거쳐 화포해변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왕복하는 경로를 계획하고 있다. 이 구간이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공인을 받으면 대회는 폴, 하프, 10km, 5km 총 4가지 종목으로 운영된다. 대회에는 6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영미 순천시 체육산업과 팀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스포츠 시설을 조성하고, 어울림체육센터·전남장애인체육인인증센터를 기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백운산휴양림·금천계곡 등 광양시 야영 명소 4곳 추천

광양시는 본격적인 야영의 계절을 맞아 백운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광양 지역 야영장을 애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의 대표적인 야영장은 백운산자연휴양림, 금천계곡야영장, 느랑이골자연휴양림, 호수도도 글램핑 등이 있다.

백운산 자락에 등지를 뜬 백운산자연휴양림은 때 묻지 않은 원시림에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 등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숲속의 집, 캐빈 하우스, 종합숙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고, 산림 치유도 체험할 수 있다.

백운산 금천계곡 끝자락에 있는 금천계곡야영장은 자동차 야영장 24면, 카라반 3면 규모다. 관리동과 샤워실, 공용취사장, 화장실,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갖췄으며 애플리케이션 '캠핏' 또는 전화(010-7930-0071)로 예약할 수 있다.

느랑이골자연휴양림은 백운산 끝자락, 수천 그루 편백나무가 피톤치드를 내뿜는 해발 450m 고지에 있다.

'느림보 버스'를 타고 산림욕장, 테마정원, 산책로, 물고기 정원 등을 찾은 뒤 '글램핑'을 즐길 수 있다. 6월에는 보리수 열매가 빨갛게 익어가고 보



광양 백운산 끝자락에 있는 금천계곡야영장에서 야영객들이 밤의 낭만을 즐기고 있다. <광양시 제공>

랏빛 수국이 만개한다.

호수도도글램핑장은 봉강면 백운저수지가 한눈에 보이는 산 중턱에 자리 잡았다.

바비큐 무한 제공과 '불멍' (불 보면서 멍 때리기), 보드게임, 대형 빙프로젝터 상영, 스포츠·놀이시설, 충전기 무료 대여, 24시간 무인매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붉은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이 야영장은 2024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숙박 분야 글램핑 부문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김성수 광양시 관광과장은 "캠핑 인구 700만 시대 광양은 수려한 백운산과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야영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쇼멍, 물멍, 놀멍' 등을 즐길 수 있는 광양야영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 7746가구 '마을방송 댁내 수신기' 설치

보성군이 올해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20여억 원을 투입해 242개 마을 7746가구를 대상으로 '최첨단 마을방송 댁내 수신기'를 보급한다.

이번 사업은 난징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택이 중 등으로 외부 옥외 스피커 방송이 실내에 정확히 전달되기 어렵거나 고령화로 인해 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주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최첨단 마을방송 댁내 수신기'는 녹음 기능이 있어 미처 듣지 못한 방송도 최대 10개까지 다시 들을 수 있으며, 양력과 음력, 시간, 온도 등의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행정 사항, 농사 정보 및 기상 정보 등을 주택 내부에 명료히 전달해 정보소외계층을 최소화하고, 유사시 즉각적 대처가 필요한 재난 재해를 신속히 전파해 인명과 재산 보호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되며, 추가로 신청받은



'최첨단 마을방송 댁내 수신기'는 내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최첨단 마을방송 댁내 수신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을 방송 난청 지역을 꾸준히 발굴해 보성군의 행정 지원을 높여가거나 재난 재해에 대응이 어려운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정기명(가운데) 여수시장이 국가산단 내 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2공장 대정비 사업장을 찾아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

여수시가 최근 국가산단 내 금호석유화학(주) 여수고무제2공장 대정비 사업장에서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여수와 학제난방재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등 유관기관과 금호석유화학(주) 장갑공 공장장을 비롯한 노조위원장과 임직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대정비 근로자 출근시간에 맞춰 오전 7시 20분부터 시작된 캠페인에서 참여자들은 근로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안전구호를 제창하는 등 사업장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에 힘썼다.

캠페인 동참에 나선 정기명 여수시장은 "산단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큰 대정비 작업 시 특이나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며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곡성군 취약계층 무더위 안전대책 간담회

곡성군이 65세 이상 1인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무더위 안전대책을 세우기 위해 최근 관계 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군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곡성소방서와 관련 사업 수행 기관 등 업무 담당자 1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운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여름철 취약계층 혹서기 안전대책을 세웠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5세 이상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 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사업이

다. 집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설치해 화재 발생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하면 실시간으로 119 소방서와 응급관리요원에게 비상 상황을 알리는 방식이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개요와 구성도, 응급상황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응급 상황 발생 때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 방법을 논의하는 등 수행 기관과 소방서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